

<2025년 6월 29일 주일말씀>

1. 죄와 의에 대하여 2.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

본 문 :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요한복음 16장 8~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 오늘은 “첫 번째, 죄와 의에 대하여
두 번째,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주일 말씀을 전해 줍니다.

<본론 말씀 전에 서론 말씀 먼저 전해 주겠습니다.>

○ 변화는 부활입니다.

성경에는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가 죽은 것은 ‘죽었다.’, ‘운명하다.’ 등의 단어를 쓰고,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살아났다.’ 라고 썼습니다.

(요 11: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왕상 17:22)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 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변화’를 부활이라고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옴’을 부활이라고 썼습니다.**

(고전 15:52~53)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요 5:24~2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 지구 세상의 개인, 종교, 민족 모두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 극도로 변화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입니다.

이때 모두 육도 영도 변화해야 합니다.

○ 변화, 곧 부활을 이루려면 ‘깨끗함’이 기본입니다.

고로 오늘은 죄에 대해 말씀하여

모두 변화의 부활을 이루게 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해 알고, 죄에 구속받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 죄를 범하면 회개하여 깨끗이 하고 살면 됩니다.

이것도 영적인 부활입니다.

○ 시대별로 죄가 다르고, 죄를 용서받는 조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는 죄는 애매합니다.
 서로 용서하면 끝나는 것도 법으로 죄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은 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생각 안 하시기도 합니다.
 정신이상자는 비정상으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보지만,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판단하여 죄로 안 봅니다.

고로 오늘은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에 대해서도
 핵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 ‘돌곡식은 어떻게 되고, 좋은 곡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참곡식이란,
 주인이 옥토 밭에 곡식 씨를 뿌려 놓고 싹이 나면
 잡초 뽑고 관리하며 기른 열매가 참곡식입니다.
 관리할수록 계속 좋아져 참곡식으로 변화됩니다.

대부분의 잡곡식은
 주인이 곡식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은 것에서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서 열매 연 것입니다.
 계속 그리되면 잡곡식이 되고 돌곡식이 되어서 딱딱해집니다.

이는 짐승이나 먹게 됩니다.

-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말씀 주었을 때 깨닫고 실천한 생명,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서 자기를 관리하고 변화시킨 생명은
참생명이 됩니다.

반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커서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 스스로 행한 자는
잡행위로 산 것이라 참열매가 못 됩니다. 참인생이 안 됩니다.
참열매의 사람으로서 참인생이 안되면,
육 사람, 돌인생이 됩니다.

- 하나님은 옥토 땅에 퇴비 주며 참곡식을 키우십니다.
사람 육은 수천 년 전에는 원시인이었지만,
수천 년간 변화되어
이 시대에는 최고 지식자요, 미남미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도 계속 좋게 변화되면 영이 아름답게 됩니다.

- 오늘 이를 핵으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와 의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 변화되고 부활함으로
돌곡식과 잡곡식이 아닌
참곡식, 참과일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 죄를 모르면 자기 죄를 당연한 자기 생활로 봅니다.
 죄가 생활이 되어 중독돼 있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생활로 봅니다.
 각자마다 살아가면서 경제, 종교, 직업에 따라
 모두 필요할 때마다 죄를 행하며 삽니다.

- 사람들은 의와 죄를 구분 못 합니다.
 흔히 자기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죄로 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죄, 하나님께 해를 끼치면 죄로 봅니다.
 반대로 유익을 주면 그것을 의로 봅니다.

- 죄와 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 지구 세상, 영계 육계의 주인이십니다.
 고로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뜻을 정해 놓고
 그것을 안 하면 해를 받고 축복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보고 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와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데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로 보셨습니다.

- 죄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논해 본다면,
 악하게 행하는 것,
 마음, 양심에 꺼리는 것들이 죄입니다.
 비유하자면 더러운 것을 죄라고 합니다.

- 이 세상에서는 법을 정해 놓고,
그 법에서 벗어났을 때 죄라고 합니다.

또한, 저마다 자기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죄라고 합니다.

동물도 모두 법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서로 싸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저마다 자기에게 싫은 행위를 하면 싫어하고 죄로 봅니다.

- 상대와 자기가 둘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여
상대에게 허락받고 행하면 죄로 안 봅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대로 행하며 같이 살아가다가도
서로 마음이 상하여 기분이 나빠지면
전에 죄가 아니라고 했던 행위도 죄로 봅니다.

- 이같이 세상에서 보는 죄는 막연합니다.
세상은 정말 죄를 제대로 모릅니다.
정치인들도 각종 사람들도
서로를 죄인이라고 하며 서로 고소하고 힐문하고 싸웁니다.
서로 상대의 잘못을 언론화하며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 하나님 법을 중심으로 모든 죄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 법은 사람마다, 각자마다 정한 것들입니다.

국가법, 종교법 모두 각 존재 세계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는 죄가 안 되어도
 그 행위가 국가법이나 종교법, 개인 법에서 죄에 해당하면
 그 법에 적용되어 대가를 받습니다.

- 가령, 가정의 두 남녀가 서로 좋아 사랑하다가 싸웠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나는 사랑치 않는데
 저자가 우발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면
 세상은 그 상대를 죄인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한 상태에서 상대를 죄인이라고 하면
 변한 자를 죄로 보십니다.
 가룟 유다같이 변한 자가 죄입니다.

- 이같이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고,
 세상 법에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데,
 세상 법은 죄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보겠습니다.>

- 하나님이 구시대에서는 죄라고 하신 것도
 새 시대에서는 의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 가령,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신약에서 메시아를 믿는 자가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면 죄입니다.

신약에서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자녀가 되고 의가 됩니다.

이같이 구약과 신약은 법이 다릅니다.

(레 17:5~6)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와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 10:4~6) “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히 10: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 10:18)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전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예수님도 한 번도 제물로 제사를 안 드리고**

몸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약법으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든지
각종 신약에서 폐한 구약법을 행하면 죄로 뵈웁니다.

그러나 구약인들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키는 사이비다. 이단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요 19: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요 19:15~16)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
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
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 새 시대가 오면 폐할 구시대 법은 폐합니다.

새 시대에서 구시대 법을 지키면 죄로 뵈웁니다.

하나님이 따지시는 법과

세상의 육적인 자가 따지는 법이 다릅니다.

○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정녕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를 믿고 거짓된 자가 한 거짓된 일이 폐하여지게

기도해야 합니다.

○ 사람이 정한 법과 사람이 죄를 다루는 것은 애매합니다.

사람은 죄도 아닌데 자기 마음이 상하면 죄로 보고
대가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또, 변한 것이 죄인데,
상대는 그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잘 대해 주는데,
상대가 해를 주었다고 하며 죄로 봅니다.
또, 상대를 자기 생각대로 보고서는 죄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죄로 보면
같이 죄로 본 자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이 아닌 행위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같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모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같이 공의롭게 하게 해야 합니다.

- 세상은 자기 사고대로 하나님 법을 벗어나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시고
온전한 하나님 법으로 행하십니다.

- 예수님 때도 그러했습니다.
율법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론이니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로 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요 5:16~18)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
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
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마 26:63~66)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셨기에

예수님의 행함을 의로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직접 행한 일을 죄로 보니

하나님은 그들이 무지로, 자기 주관으로 행한 대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 형제들과 잘 지내다가

온전치 못한 자기 마음과 성질로 인해

가인의 성격이 일어나고, 시험 들어서 변하여서는

과거에 잘 지내고 은혜로 지낸 것도 상대의 죄라고 합니다.

이는 변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니, 변한 자의 말일 뿐입니다.

정상이었을 때를 중심해야지,

본성이 변했을 때를 중심해서

이전에 정상이었을 때 자기에게 정상으로 행한 자를 죄로 보니까.

하나님은 정상인 때를 표준하십니다.

변하고 한 말과 행위는 중심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지옥 가지 않고 잘 지내다

자기 행위로 지옥 가서는 피로우니

세상에 있을 때 고통받았다고 거짓으로 고한 격입니다.

- 하나님은 사랑 법을 주시고 모두 용서하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죄인시하고 싸우면 서로 손해입니다.

- 선 쪽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여 의를 행하는데,
악 쪽이 선 쪽의 행함을 죄로 보고 용서하지 않고 대하면
하나님은 그 불의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용서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창조 목적을 두고
육과 영의 이상 세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종교입니다.

- ◎ 제일 큰 죄는 구원자를 안 믿고,
그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한 부분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요 16:8~9)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자는
다 천국, 또는 황금천국으로 갔습니다.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나온 것을 두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으로 옮겼느니라”

(요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도 영도 죽은 것입니다.**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니
이상세계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앞에서 성구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행하여 새 시대를 맞으면
부활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땅에도 이상세계와 천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 **하나님은 구약 - 신약 - 성약 시대별로
성장한 대로 차원 높여 이상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 **그 밖에서도 서로 자기들이 이상세계를 이루겠다고
종교를 만들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니 안 됩니다.
우상 종교, 자기 스스로 만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난 종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쓰인 하나님 법대로

육도 영도 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 하나님은 반드시 그동안 해 오신 역사 위에 행하십니다.

구약 - 신약 - 성약으로

기존 역사 위에 더 새롭게 하십니다.

○ 하나님은 과거는 과거에 사는 선조들이 하게 하시고,

현재는 발전된 세계의 차원으로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행하게 하십니다.

○ 절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곳만 이상세계요, 땅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본 역사도 하나입니다.

그 한 곳에서 근본 뜻을 이룹니다.

오직 그 한 역사의 뜻을

땅에서 육과 혼과 영이 이루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의 나라에서 영혼들이 황금천국에서 이룹니다.

◎ 하나님 뜻의 삶이란

오직 하나님 뜻을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이루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함을 낙으로 삼습니다.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 뜻이 이뤄진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모든 삶을 사랑해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부활했다고 합니다.

○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그를 사랑해서 집도 짓고, 돈도 벌니다.
 그를 사랑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를 사랑해서 자신을 예쁘게 만들고 단장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같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황금천국의 삶입니다.

○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니다.
 고로 땅에서도 이 사랑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마귀, 사탄, 악에 속한 자들은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를 주고, 못 하게 막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역사에 있다가 불만을 품고 루시퍼같이 나가고,
 가룟 유다같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섭리사에서 나간 자들 역시
 언론과 함께 해를 주고 사탄같이 행했습니다.
 악하게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역사에 해를 준 연고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께 이를 고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그같이 대한 것으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대가는 그 한 시대가 다 갈 때까지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쪼개십니다.
 알곡이 없는 곡식과 같은 자는 제거하십니다.

그중에 자기가 회개하여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주관권에서 소생케 하여 그 주관권에 살게 하십니다.
 고로 옛것에서 변화되어 부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쪼개서 행하십니다.

-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 사랑의 한 세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천 년 동안 혼인 잔치 역사를 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육도 영도 부활하여 사는 삶입니다.

○ 영은 천국 가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이 땅에 살아도
 육의 세상에서 온전히 변화하고 부활한 영은
 마치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 이미 휴거되어
 하늘에서 혼인 잔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되어 살면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상세계를 이루며 행합니다.
 아직 휴거되지 못한 영은 땅에 육신과 같이 있습니다.

- 육의 차원대로 영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육이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에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 보낸 자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며 살면
영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이 성장합니다.

곡식과 과일은 씨를 뿌리고 퇴비 주고 키우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여 부활한 열매를 엽니다.

영 역시 성장하여 부활한 사랑의 대상체 영이 되면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하늘 세계, 황금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영이 부활하여 휴거되면
하늘 황금천국과 땅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성장하는 영은 육신과 함께 그 급 영계에서 살아가다
익은 곡식은 베어 들이듯이,
다 큰 과일은 따 들이듯이,
사랑 대상으로 완전히 익고 성장하면
부활하고 휴거되어 하늘 천국으로 갑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면
결혼하여 딸도 아들도 자신의 가정을 따라가는 격입니다.
이치를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 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과 자기 종교를 만듭니다.
성경도 자기 생각대로 풀고 사니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시대에서 살아갑니다.

○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로 와서 하나님의 그 보낸 자를 믿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한 자,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부활하여 새 시대로 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만
그 시대 뜻을 이루십니다.

나머지는 모두 구시대입니다.

자기 스스로 뜻을 만들거나 구시대에서 뺀어 나와 산다고 하나
이 역시 구시대 사람들일 뿐입니다.

○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루시는 근본 핵 역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새 시대라고 하나
자기 스스로 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무가 다 타면 사라지듯 사라지고 끝납니다.

○ 새 역사를 따라가도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자는
큰 나무에 붙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잔가지는 주인이 나무를 깨끗이 단장할 때
가위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 섭리 안에서도 양과 염소는 하나님이 갈라 내십니다.

염소들은 자기가 염소인 줄 모릅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행합니다.

양보고 염소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염소입니다.
이로써 모두 알게 됩니다.

○ 염소는 자기 주인까지 끌고 다니려 합니다.

주인은 이를 그냥 두지 않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갈라 놓습니다.

양이 양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습니다.

목자는 다 압니다.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를 만듭니다. 모두 보기 바랍니다.

○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자기를 양으로 만들고 염소로 만듭니다.

모두 이를 깨닫고 양으로 변화돼야 부활합니다.

◎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하지만,

큰일은 하나님, 성령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합당해야 해 주십니다.

○ 고로 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권에서

그 보낸 자와 같이 살지 않으면

모두 잡초 속에 곡식 같아 결국은 모두 돌곡식이 됩니다.

○ 원 곡식인 참곡식은

주인이 참곡식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얻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부활한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성령이 보낸 자가 농부가 되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 돌곡식은 주인이 거두지 않습니다.

잡초 속에 씨가 혼자 떨어져 싹이 나서 주인 없이 크고 열매 열면
그 곡식은 1세 잡곡식이라 합니다.

그 열매를 거두지 않고 잡초 속에 크다
그 열매의 씨가 또 땅에 떨어져서
잡초 속에서 크다가 또 열매를 열면
더 맛이 없는 2세, 3세 잡곡식, 돌곡식이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주인 없이 크는
잡곡식, 돌곡식으로 변해 갑니다.
이 곡식은 맛도 없어 사람들은 안 먹고 새나 짐승이 먹습니다.

○ 사람도 하늘 주인이 없으면 이같이 변해 갑니다.

돌곡식, 돌감나무, 고욤나무 열매는 짐승이 먹듯
사람도 참생명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생명이 안 되면
사탄과 악의 것이 됩니다.

○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온전히 만들어
참곡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참곡식이 계속 번져가서 대농장을 이루고, 대농가를 만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전히 변화되고 부활한
하나님의 참생명이
하나님의 가정, 민족, 세계를 이루어 가는

천 년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 이치를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농사꾼을 보내서 참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시대 생명들을 변화시켜 부활시키십니다.

○ 예수님은 구약 종급에서 신약 아들급으로 부활시켜

차원을 높이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신약 자녀급에서 성약 신부급으로 부활시켜

사랑하는 신부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 이때 잡초 인생, 돌곡식, 잡곡식 인생이 안 되려면

농사꾼에게 붙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받고 제때 커서 열매 맺고 잘됩니다.

관리 안 받으면 역시 잡초, 돌곡식이 됩니다.

(롬 11: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 참감람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절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이를 못 하면, 이 시대에 태어난 보람이 없습니다.

이는 마치 새 시대가 왔는데도 구시대 삶에서만 끝나고
새 희망을 받지를 못한 것과 같습니다.

◎ 시대 따라 체질도 바뀝니다.

고로 새 시대가 오면
땅에서부터 아예 새 시대 삶을 살아야 합니다.

○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

나무도 식물도 봄에 해당하게
퇴비 주고 위치를 옮겨 줘야 더 멋지게 성장합니다.
열매도 최고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존재물과 사람도
때를 따라 행해야 좋게 변화됩니다.

○ 땅에서 영의 갈 나라인 지옥, 천국, 각 영계가 결정됩니다.

태 속에서 남녀 성별이 결정됩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성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육계에서 영의 각 세계가 결정됩니다.

○ 땅에서 영이 황금천국으로 갈 것이 결정돼야지,

영계에 가서 천국에서 황금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10배, 100배 힘듭니다.
만들 때 아예 만드는 기계나 집 만들 듯이 온전히 해야지,
만든 후에 다르게 바꾸고, 더 차원 높게 만들려면 불가능합니다.

○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누가 안 시켜도 육신이 스스로 정말 전심을 다 해서 행합니다.
아예 최고 영의 세계인 황금천국으로 가려고 목숨 걸고 삽니다.

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절대 이치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줘니까.
아는 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황금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 이것이 최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100억 분의 1도 사기 당하거나 속는 일 없이
황금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절대 갚아 준다.” 하셨으니,
일점일획도 착오 없이 갚아 주십니다.

○ 최고 맘 놓고 할 것이

하나님, 성령, 성자 절대신께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여도 맘 놓고 해도 됩니다.
단, 끝까지 해야 합니다.
최고 좋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니다.
이같이 완전한 세계는 없습니다. 아멘.

○ 사람도 새 시대가 오면

새 역사를 맞고 하나님 뜻을 좇으며 살아야 합니다.
계절을 좇아 퇴비 주고 키워야
나무가 변화되어 열매 맺고 유익을 주듯이

인생도 하나님의 때를 좇고 행해야
 자기에게 유익 되게 변화되고 장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 살고 있으니
 이 이치를 깨닫고 모두 더 행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인 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해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죄를 지어도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죄짓고 회개도 못 하고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 짐을 많이 지면 그 고통이 각종으로 오듯이
 죄 짐을 지면 죄 짐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못 합니다.

선생이 옛날에 지계에 무거운 짐 지고 다닐 때
 죄 짐을 지면 이같이 짐에 힘을 다 뺏기고 빨리 못 가듯이
 인생도 죄 짐으로 인해 날면서 살지 못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정말 회개하여 없애야 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 모두 이성 죄와 각종 죄를 모두 회개하고
 다시 행치 말아야 죄 짐을 안 지고 살게 됩니다.

○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 사망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 8: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 **사망에 처한 자의 죄를 사람들은 용서 안 해 줘도 주는 용서해 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 **죄란,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기면 죄입니다.

-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가 오면 구시대의 폐할 법은 폐하게 됩니다.

(히 10: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 10:9)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 **구약의 기본법인 십계명과 절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법을 지키면서 그 위에 새 시대에 주신 법을 지키면 구시대의 폐할 법은 폐하는 것입니다.**

- **구약의 제사법도 폐해졌습니다.**

새 시대에서는 그 대신 자기 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행하면 되었습니다.
말씀의 법도 그러합니다.

-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새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며
예수님을 이단시켰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 15:3)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죄의 대가로 연대죄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로 엄한 구약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옴으로
구약의 형벌과 고통은 끝났으니,
신약에는 새 시대 자유로운 자녀급의 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 또, 신약은 예수님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조건을 세우는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역시 연대죄입니다.
새 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면
구시대의 연대죄는 끝납니다.
당세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 하나님은 때가 되어 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그 육과 함께 맞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대가로
구시대에서 풀려서 신부급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 이 시대도 구시대의 엄한 자녀급 법에서 기본법은 지키되
구시대에만 해당하는 옛 법은
새 시대 조건을 세우고 폐하였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신부시대 사랑의 새 법을 주셨습니다.
 - 말씀도 옛 시대는 옛 시대 차원으로 풀고
새 시대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구시대 법에서 풀어 주시어
새 시대 차원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 고로 모두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 주체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새 시대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조건을 세웠기에
새 역사를 이같이 이루어 왔습니다.
- 신약에 예언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 성자와 함께 예수님 영이 강림하시어
시대 사명자로 지금껏 해 오셨듯이 천 년간 해 가십니다.
- 이같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속 시원하게 믿고,
자기 재능껏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고 사랑하며 가게 됩니다.

<영상 1> 시작

○ 비유하전대

구약은 곡식이나 과일나무를 심으며 씨를 뿌리는 시대이고,
신약은 성장하는 시대이며,
성약은 마지막으로 열매 익어 추수하는 천 년 역사입니다.

<영상 1> 끝

○ 이때 태어나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역사에 불러 주셔서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 과일, 곡식 열매는 기온이 높을 때 잘 익습니다.

시대도 그러합니다.

고로 마지막 역사의 때는 환난 핍박이 극심합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씨 기온으로 곡식도 과일도 맛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 농사를 짓는 중간에는 열매를 못 엽니다.

꼭 끝에 가서야 농사지은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런데 자기를 위해 하늘 향해 사랑 농사짓다가 나가 버리고,

세상으로 마음과 몸을 바치려 갑니다.

백 배, 천 배, 만 배 고통이 옵니다.

그때 괴로우니 이들이 선생에게 고통을 줍니다.

곡식도 주인이 먹지 않으면 새와 들짐승이 먹듯이
인생 곡식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사지은 것이 아니라면,
사탄들이 먹습니다.

- ◎ 오늘 죄와 의에 대해서,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으니
이 말씀대로 모두 새 시대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